

수석합격기

[제55회 행시 검찰사무직 수석합격]

##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기



김수연

- 1985년 8월 생
-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4년 재학
- 제55회(2011년) 행시 검찰사무직 수석합격

### I. 들어가며

벌써 합격 발표가 난 지도 한달이 넘게 지나고 어느덧 2012년이 다가왔네요. 밖은 많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지는 불타오르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으로 단지 다른 수험생 분들보다 조금 빨리 합격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수기를 쓴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도 앞선 합격생 분들의 수기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기에 제 수기가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 II. 수험기간

#### 1. 2009년 1월 ~ 12월

2008년 군 제대 후 학교에 재학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고, 행정고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1월에 학교 고시반에 입반하였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할 경우 학교에서 장학금 혜택이 있었기에 들어가면서 바로 PSAT 준비를 했고, 운이 좋아서 1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수업과 학과 활동을 하면서 2차 시험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고, 2차 시험장에는 3일만 간 후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2009년 2학기에도 학교에 다니면서 1년동안 2차공부를 한 것이라고는 행정법 예비순환 동영상 강의를 3번정도 본 것과 형법 사시 1차 동영상 강의를 1번 본 것 그리고 토익점수를 취

득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형법 1차강의를 들었던 것이 후에 2차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시 형법 2차강의의 경우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범대 출신이 아니거나 형법에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형법 1차강의를 들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2. 2010년 1월 ~ 6월

1월 ~ 2월에는 학교에서 PSAT준비를 하였습니다. 1차시험에서 안정권으로 합격 할 점수가 나왔고, 3월에 본격적인 공부를 위하여 휴학을 하고 신림동에 입성하였습니다. 1차시험을 합격하였지만 바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기에 행정법 예비순환부터 강의를 들었고, 이외에 2차시험전까지 형사소송법 예비순환 강의, 그리고 형법 동차반 동영상강의와 형소법 2순환 증거파트 부분만 동영상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해의 결과는 형사소송법과 한번도 공부하지 않고 전공에서 배운 기본상식으로 본 법의학을 제외한 3과목에서 과락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 3. 2010년 7월 ~ 2011년 6월

신림동 입성 후, 2차 시험을 볼 때까지 2011년 시험을 대비한다고 공부하면서 당장 눈앞의 2010년 2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으려고 공부를 하다보니 체계적인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공부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분

위기 전환도 하고,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독서실을 신림 9동에서 집이 있는 신림 2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기간에는 행정법, 형법, 형소법의 경우에는 학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예비순환부터 4순환까지 김기홍 강사님의 강의를 따라가면서 강의를 있는 기간 내에 행정법 내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형소법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과목들이었습니다. 1순환에 실감을 들었으나 강사님들 스타일이 저랑 맞지 않았고, 결국 2순환 시기에 1순환 강의와 2순환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PSAT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었으나 2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1월 달부터 PSAT 시험 1주전까지는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세타임으로 나누어서 1타임만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2차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2차 시험을 한 달 앞두고는 4월-2일-1일을 기본 틀로 과목의 양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한과목씩 보았고, 시험을 보는 5일 동안의 기간에는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하면서 다음날 볼 과목을 보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 4. 생활패턴

저는 신림에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경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룸메이트가 일단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독서실에 가지 않고 방에서 공부하는 친구였기에 룸메이트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공부

가 좀 하기 싫거나 피곤한 날에도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였고,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의 경우에는 저는 잠이 많아서 밤 12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 7시간 정도는 꾸준히 잤고, 1차 시험 합격 발표 후에는 1시간 정도를 줄여 6시간 정도를 잤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 때 까지는 공부하는 시간에 줄지 않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줄음해소 음료를 마시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1차 시험 발표 때 까지는 월~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하루는 꼭 쉬었고, 1차 시험 발표 이후에도 일요일에는 늦잠자고 오후에 공부하는 등 채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거나 예능프로그램을 보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이성친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면접 스테디10명 중 7명이 이성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성친구가 있는 것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시생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변화를 최대한 줄이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잘 컨트롤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III. 공부방법

#### 1. PSAT

PSAT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셋 관련해서 강의를 들어보지도 않

았고, 모강도 거의 풀어보지 않았습니  
다. 항상 1차는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갔습니다. 각 과목별로 기본서를 1권  
씩 보되 기출위주의 기본서를 보았고,  
여기서도 자료해석의 경우 기본서가 너  
무 양이 많아서 약한 부분만 이론을 보  
는 방식으로 책을 보았습니다. 다만, 기  
출문제를 봄에 있어서는 문제를 풀고 분  
석할 때, 문제의 보기 하나하나가 왜 맞  
는 것인지 왜 틀린 것인지 꼼꼼하게 검  
토를 하였습니다. 모강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 관리를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모강의 경우 기출에 비하여 문제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  
문에 모강점수에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셋의 경우 90분  
동안 40문제를 다 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관리 측면에 있어  
서 한가지 팁은 문제에서 1번 보기가 답  
이라면 2,3,4,5번 보기는 검토 하지 말  
고 과감히 1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자신이 실수를 하여 1~2문제를 틀린다  
하여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2. 2차과목

##### (1) 행정법

행정법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유기  
적으로 파악하여 문제 사안을 잘 포섭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있는 사례들이 문제로 출제되니

중요한 판례들은 숙지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목이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행정법은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예비순환에서 4순환까지 김기홍 강사님의 강의를 따라가면서 사례집도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된 것만 보았습니다. 행정법은 양도 많고 처음에 접할 때는 쉽지 않은 과목이라 순환이 한번 지날 때 마다 조금씩 깨닫게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스터디 같은 것을 하지 않아 답안작성 연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이 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온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2) 형법

재미있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2차 강의자체가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초가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3배 더 공부해야 이해가 되었고 시험 볼 때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서브 외에 기본서를 가지고 끝까지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사법시험 기출문제들을 한번씩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강의는 김정철 강사님의 강의와 교재들을 보았고 사례집은 이재상 강사님의 신경향사례연습 책을 보았습니다.

## (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행정법이나 형법에 비해 공부하기는 수월한 편입니다. 수사하는 과정, 재판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서와 사례집은

이재상 교수님 책을 보았고, 김정철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막판에는 내 머리속의형소 책에 단권화하여 그것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 (4) 교정학

강의도 없고 범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는 과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 고민을 많이 했고 기본서를 쉽게 정하지 못해 다양한 책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김옥현저 교정학 이론(7급) 책을 기본서로 삼아 부족한 부분은 허주옥 교수님의 교정보호학, 이운호 교수님 교정학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교정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론들을 실제 교도행정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교정학회의 논문, 교정본부에서 나오는 월간 교정, 신문에 때때로 나오는 교정 관련 기사들을 읽어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5) 법의학 - 선택과목

법의학의 경우에는 재미있으면서도 양이 상당히 적은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법의학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 교재로 강대영 공저 법의학을 보았고, 의대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구해서 공부를 하였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면접준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2차 합격발표

소식을 듣고 다음날 행사사랑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하여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면접과 같이 집단토론을 하고 프리젠테이션과 사전조사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1~2주전부터는 다른 스터디 조들과 조인트를 하여 스터디를 하는데 이때 같이 면접에 들어가는 직렬 사람들을 만나 얼굴이라도 익히면 실전에서 편안하게 면접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단 토론을 같이 한 5명 중 면접 전에 3명을 만났었고, 집단 토론의 사회를 같이 스터디를 했던 출입국관리 직렬의 누나였기 때문에 오전 집단 토론 면접을 크게 긴장하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면접에 대한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특히 소수직렬의 경우 다른 직렬에 비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험기간 중 면접 준비기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간이 아니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비 공직자로서의 설렘과 기쁨이 함께 하는 시간이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접 준비기간 했던 생각들, 스터디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들을 면접 때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그리고 면접을 함에 있어 학원 강의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면접에 자신이 없었고, 불안함에 학원 강의를 수강하기는 하였으나 학원 강의보다는 스터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원 강의에서는 사전조사서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해 준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구해 보는 것이 면접 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 IV. 마치면서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도 잘 안되고 시험에 대해 회의가 드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 때에는 처음 행정고시를 시작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질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모두가 합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였을 것이고 지금까지 합격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어 왔을 것입니다. 한걸음만 더 나아가면 수험생 여러분들도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